

## 2023년 국제 추수 감사절 특별 집회 포어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모든 문제, 특히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주님을 누리는 것에는 많은 방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님의 임재의 기쁨,  
신성한 로맨스 안에 사는 기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받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는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는 기쁨,  
왕국 안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 같은 것이다.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그 영의 통치에 대한 계시이다.  
왜냐하면 그 영의 통치는 성숙한 성도의 다스리는 방면이기 때문이다.  
그 영의 통치(하나님의 왕국의 실재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제한과 규제를 받으며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생활)는  
그 영의 다른 어떤 방면보다 더 높다.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은 자신을 준비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신부가 성숙하고, 건축되고, 의를 얻고,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이 되는 것이다.

전체 주제: 그리스도를 누리며 성숙에 이르도록 생명이 자람

메시지 1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

성경: 고전 1:2, 9, 2:9-10, 13:1-8, 롬 2:13, 애 3:22-24

- I. 고린도전서는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갖고 계신 의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중심이시자,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시는 것이다 — 고전 1:2, 9, 24, 30.
- A.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통 곧 누림 안으로 부름받았다(고전 1:9). ‘교통’이라는 단어는 누림의 사상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우리의 몫이다(고전 1:2, 골 1:12).
- B.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의 의도는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모든 문제, 특히 분열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 C.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럴 때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 고전 1:9, 골 1:17하, 18하.
- D.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히 누리고 가장 충만히 얻는 것이다. 이것의 결과로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도의 누림을 우리의 상으로 얻게 된다 — 빌 3:14, 마 25:21, 23.
- E. 우리는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이 ‘한 가지 것’은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써 그분을 얻고 소유하는 것이다 — 빌 2:2, 5, 1:20-21, 3:7-14, 4:13.
- F. 한 가지 것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교회생활 곧 몸의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채워져야 한다.
- G. 고린도전서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스무 가지 항목의 풍성을 소유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몫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의 비결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 고전 1:9.
1.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으로 누려야 한다 — 고전 1:2.
  2.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누려야 한다 — 고전 1:24, 30.
  3.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심지어 영광의 왕으로 누려야 한다 — 고전 2:7-8, 롬 8:30, 시 24:6-10.
  4.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깊이들(깊은 것들)로 누려야 한다 — 고전 2:10.
  5.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로 누려야 한다 — 고전 3:11.
  6.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월절(고전 5:7), 무교병(8절),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 영적인 반식(10:3-4)으로 누려야 한다.

7.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고전 11:3, 골 2:19, 엡 1:19-23)와 몸(고전 12:12, 24-25상, 엡 4:15-16)으로 누려야 한다.
8. 우리는 그리스도를 첫 열매(고전 15:20, 23), 둘째 사람(47절),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마지막 아담(45절)으로 누려야 한다.

**II.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교통 안으로, 곧 그분의 아들에 대한 누림 안으로 부르신 것에 신실하시지만,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의도 안으로 부르신 것에 신실하지 않다 — 고전 1:9, 롬 2:13, 애 3:22-24.**

- A.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는 그분께서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 우리 안에 분배되심으로써 우리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이다. 이러한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 곧 교회를 산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이다 — 요 3:29-30, 엡 3:16-19, 21.
- B.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취하는 유일한 길은 매일 그분을 마시고 흘려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 시 36:8-9, 사 12:3-6, 고전 12:13, 요 7:37-39, 4:10, 14, 롬 10:12-13, 살전 5:16-18.
- C. 하나님을 마심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 나를 저버렸고 /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 롬 2:13.
  1.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누림을 위한 그들의 원천 곧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근원들을 향해 돌아섰는데, 이 근원들은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확대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할 수 없었다.
  2. 저수조들을 파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람의 노력으로 애쓰면서 하나님을 대치하는 어떤 것(우상들)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한다. 저수조들이 새서 물을 담아 둘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 안에 생수로 분배되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증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 요 4:13-14.
- D.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누리려고 나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 사 57:20, 비교 55:1-2, 6-7.
- E.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지만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나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데 신실하시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대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다 — 겔 14:3, 요일 5:21.
  2. 우리 환경의 외적인 평안, 우리 개인의 편안함과 안락함,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에게 우리를 빗나가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데 신실하시다.
  3.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데 신실하시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셔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동화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시어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다 — 롬 17:7-8, 고후 1:8-9, 요 16:33, 고전 10:3-4, 12:13.
  4.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다. 우리는 실패 때문에 우리 자신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낙심하는 법이 없으시다. 우리의 실패는 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 우리를 성숙에 이르도록 계속 이끄실 수 있게 한다 — 롬 8:28-29, 히 6:1상, 창 37:1과 각주, 47:7과 각주.

III. 고린도전서는 주님을 누리는 길이 그분을 사랑하고(2:9-10, 16:22) 서로 사랑하는 것(13:1-8 상)임을 제시한다. 주님의 회복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계 2:4, 요일 4:19)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엡 4:16).

A.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 그분의 마음의 모든 비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고 예비하신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 요구 조건이다 — 고전 2:9-10, 마 22:37-38, 시 73:25, 116:1-2.

1.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릴수록 내용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요구된다 — 계 2:4-5, 7.
2.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릴 때,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다. 첫째가는 사랑 곧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주님께 으뜸의 위치 곧 첫째 위치를 드리며,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3.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인 바로 그 생명은 인격이며, 이 인격을 적용하고 누리는 유일한 길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 예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새롭게 접촉하여 그분의 현재의 임재를 누려야 한다 — 요 11:25, 14:5-6, 딤후 1:14, 요 14:21, 23, 고후 5:14-15, 계 2:4-7, 골 1:18하, 롬 6:4, 7:6.
4. 우리는 홍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은 분명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강권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하고 우리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그분을 사랑하게 한다 — 고후 5:14.
5. 우리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려면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며, 그분의 아름다움(사랑스러움, 즐거움, 유쾌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께 여쭙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점검받는 것이다 — 시 27:4.

B. 사랑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 고전 12:31하-13:8, 13, 비교 14:1, 3, 4하.

1.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메시지들을 듣고 단지 지식만을 얻어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 — 고전 8:1하, 비교 고후 3:6.
2. 사랑의 법인 생명의 영의 법(롬 8:2, 갈 6:2-3)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붙들어 주는(행 20:35, 살전 5:14) 사랑의 수고가 된다(고전 15:58, 살전 1:3). ‘약한 사람들’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3.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엡 5:25)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교회생활은 형제 사랑의 생활이고(요일 4:7-8, 요이 5-6, 요 15:12, 17, 계 3:7, 엡 5:2, 비교 유 12상),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엡 4:16).
4.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오늘날의 교회의 하락을 정복하려면 우리에게 불타는 사랑의 영이 필요하다 — 딤후 1:7, 롬 12:10-11.
5. 우리가 하나님과 건축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함께 섞이는 것에 대한 체험과 누림 안으로 더욱더 들어갈 때,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실재가 된다 — 고전 12:14-27, 롬 16:1-16, 골 4:16, 요 12:24, 레 2:4-5.